

Korea-Japan Cultural Exchange Special Concert Vol.6

**MUSIC
FESTIVAL
Argerich's
Meeting
Point.[®]
in Beppu
2019**

CREDIA MUSIC&ARTISTS

15만 공연애호가들의 선택

Club BALCONY가 제안하는 품격있는 문화예술의 경험과 서비스
클럽발코니와 함께 감동의 문화생활을 설계해보세요!

Club BALCONY는 15만명 클래식 애호가들이 참여하는 국내 최고 수준, 최대 규모의 커뮤니티로 감동이 있는 무대에 늘 함께 해왔습니다. 아울러 문화인들의 소사이어티를 꿈꾸며 시작된 CIELOS Club은 문화와 예술로 소통하고 신예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후원하며 보다 나은 문화생활을 누리는 모임으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JOIN Club BALCONY

15만 공연애호가들의 선택 (예매고수의 노하우)

크레디아 기획공연 5~30% 상시 할인

나만의 비서! 티켓 오픈 무료 SMS 서비스

문화애호가의 필수품, Club BALCONY 매거진 무료우송

모바일 회원카드 확인 후 크레디아 기획공연 프로그램북 증정

크레디아 기획공연 단독 선예매 및 예매, 취소, 티켓 배송 수수료 면제

만료 후 재가입 시 할인 혜택



JOIN CIELOS Club

CIELOS 회원만을 위한 프라이빗 음악회, 전시회, 렉처 문화행사 무료초대 (동반1인 포함)

CREIDIA의 엄선된 공연 패키지 30~50% 할인제공 및 좌석우위

Club BALCONY 평생회원 자격

Upcoming Programs

클럽발코니 렉처 프로그램

클럽발코니 x 오드포트 친절한 디토씨의 음악여행 <마르타 아르헤리치, 삶과 음악> 15/3(금) 8시

클럽발코니 x 스틸로 대니 보이 대니 구의 <그림 책을 듣는 밤> 15/17(금) 8시

씨엘로스 초대 프로그램

[CIELOS 회원 + 동반1인 무료 참석 가능]

CIELOS x LMOA 롯데뮤지엄 <끝없는 여정, 제임스 진> | 5/22(수) 3시

CIELOS x KUMHO 금호아트홀 시리즈 | 2019년 5월 ~ 12월

CIELOS x SEJONG 세종문화회관 시리즈 | 2019년 5월 ~ 6월

Korea-Japan Cultural Exchange
Special Concert Vol.6

베틀부 아르헤리치 뮤직 페스티벌 in SEOUL 2019

마르타 아르헤리치
그리고 임동혁

2019년 5월 7일 (화)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8PM Tuesday, May 7, 2019

Concert Hall, Seoul Arts Center

CREEDIA

피아노, 마르타 아르헤리치	Martha ARGERICH, Piano
피아노, 임동혁	Dong Hyek LIM, Piano
낭송, 아니 뒤투아	Annie DUTOIT, Recitation
바이올린, 임가진	Kajin LIM, Violin
바이올린, 김택우	Duckwoo KIM, Violin
비올라, 강윤지	Yoonji KANG, Viola
첼로, 심준호	Joon-ho SHIM, Cello
더블베이스, 안동혁	Dong-Hyuck AHN, Double Bass
플룻, 최나경	Jasmine CHOI, Flute
클라리넷, 임상우	Sang-Woo LIM, Clarinet
타악기, 에드워드 최	Edward CHOI, Percussion
타악기, 스캇 버다인	Scott VERDUIN, Percussion

주최 **CREEDIA MUSIC & ARTISTS**

후원 **KOREAN AIR 50**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
FOUNDATION OF PLATON ACADEMY

Dong Hyek Lim *and* Martha Argerich

아르헤리치와 임동혁의 호흡은 너무 완벽해서,
누가 어느 파트를 연주하는지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였다.

- 클래식 베가이스터트 -

CREDIA



하이든 1732-1809
Austria

J. Haydn

현악 사중주, 라장조 ‘종달새’, Op. 64-5 Hob. III:63

18'

String Quartet in D major ‘The Lark’, Op. 64-5 Hob. III:63

- I. Allegro moderato 적당히 빠르게
- II. Adagio cantabile 천천히 노래하듯이
- III. Minuet: Allegretto - Trio 미뉴엣: 조금 빠르게 - 트리오
- IV. Finale: Vivace 피날레: 아주 빠르게

Violin 임가진, 김덕우 Viola 강윤지 Cello 심준호

생상스 1835-1921
France

C. Saint-Saëns

동물의 사육제

30'

Le carnaval des Animaux

- I. Introduction et marche royale du Lion 서주와 사자 왕의 행진
- II. Poules et Coqs 암탉과 수탉
- III. Hémiions (Animaux véloes) 당나귀
- IV. Tortues 거북이
- V. L'Éléphant 코끼리
- VI. Kangourous 캥거루
- VII. Aquarium 수족관
- VIII. Personnages à longues oreilles 긴 귀를 가진 인물
- IX. Le coucou au fond des bois 숲 속의 뻐꾸기
- X. Volières 커다란 새장
- XI. Pianistes 피아니스트
- XII. Fossiles 화석
- XIII. Le Cygne 백조
- XIV. Finale 피날레

Piano 마르타 아르헤리치, 임동혁 Recitation 아니 뒤투아
 Violin 임가진, 김덕우 Viola 강윤지 Cello 심준호 Double Bass 안동혁
 Flute 최나경 Clarinet 임상우 Percussion 에드워드 최, 스캇 버다인

I N T E R M I S S I O N

라흐마니노프 1873-1943
Russia

S. Rachmaninov

교향적 무곡

32'

Symphonic Dances for Two Pianos, Op. 45

- I. Non Allegro 빠르지 않게 II. Andante con moto - Tempo di Valse
안단테보다 조금 빠르게, 그러나 활기 있게 - 왈츠의 빠르기로
- III. Lento assai - Allegro vivace 아주 느리게 - 매우 빠르고 생기 있게

Piano 임동혁, 마르타 아르헤리치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ic devices.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요제프 하이든 1732-1809, Austria
현악사중주, 라장조 '종달새'
Op. 64-5 Hob. III:63

Joseph Haydn
String Quartet in D major
'The Lark', Op. 64-5 Hob. III:63

요제프 하이든(1732-1809)은 100곡이 넘는 경이적인 수의 교향곡을 작곡하여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지만, 약 70곡의 현악사중주를 완성하여 '현악사중주의 아버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 첫 곡으로 연주되는 작품은 작품번호 64로 출판된 여섯 개의 현악사중주곡 중 다섯 번째 곡으로, 이 곡은 하이든의 에스테르하저 오케스트라에서 1783~88년에 제2바이올린을 이끌었던 요한 토스트를 위해 1790년에 작곡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2월에 '빈 신문'에 이 곡의 판매 광고가 나왔으며, 같은 해에 영국에서도 판매를 개시했을 정도로 주목을 받았다.

1악장은 아기자기한 서주 후 제1바이올린이 높은 음으로 멜로디를 연주한다. 이 선율이 종달새의 소리처럼 들린다고 하여 '종달새'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이 악장은 다양한 표정으로의 변화가 돋보이며, 기본 조성으로부터 거리가 먼 곳까지 다녀오는 등 다분히 실험정신이 엿보인다. 느린 2악장은 장조-단조-장조의 구성으로 진행되며, 3악장은 밝은 분위기의 미뉴엣이지만 중간 부분은 단조로서 대비를 이룬다. 4악장은 무궁동 스타일로 빠르게 진행한다.

CREEDIA

까미유 생상스 1835-1921, France
동물의 사육제

Camille Saint-Saëns
Le carnaval des Animaux

오늘날 생상스(1835-1921)의 가장 자주 연주되는 곡은 단연 <동물의 사육제>(1886)일 것이다. 그런데 진지한 음악을 작곡하던 19세기 프랑스 최고의 거장인 그에게 이 작품은 뜻밖의 외도였다. 근본을 알 수 없는 특이한 편성에, 동물을 장난스럽게 묘사하고, 게다가 잘 알려진 선율을 패러디하는 등 그의 품위에 어울리지 않았다. 그래서 생상스는 이 작품을 사육제에 맞춰 사적으로 연주했을 뿐이며, 출판은 사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실제로 생상스가 세상을 떠나고 2개월 후에야 첫 공개연주가 이루어졌고 4개월 만에 출판되었으며, 곧 생상스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되어 어린이 음악회의 단골 프로그램이 되었다.

1. 서주와 사자왕의 행진: 동물들이 모여드는 듯한 서주로 시작한다. 피아노의 팡파르 후 현악기가 위엄과 절도를 갖춘 행진곡을 연주한다. 그리고 제2피아노와 첼로, 더블베이스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포효를 묘사한다.
2. 암탉과 수탉: 빠르고 짧은 반복음형이 모이를 쪼는 모습을 묘사한다.
3. 당나귀: 두 피아노가 한 옥타브 차이를 두고 어디론가 급히 달려가는 듯 빠르게 연주한다.

4. 거북이: 현악기가 오펜바흐의 오페레타 <천국과 지옥> 중 ‘지옥의 춤’(일명 ‘강강춤’)을 매우 느리게 연주한다. 피아노는 한 박자를 셋으로 쪼갠 셋잇단음으로 연주하고 현악기는 둘로 쪼갠 8분음표 기준으로 연주하여, 둘의 리듬이 일치하지 않는 어색함이 묘미이다.
5. 코끼리: 베를리오즈의 오페라 <파우스트의 영별> 중 ‘바람 요정과와 춤’을 더블베이스가 왈츠 리듬을 바탕으로 연주한다.
6. 캥거루: 피아노의 스타카토 연주로 캥거루가 총총 뛰어다니는 모습을 묘사한다. 이외의 부분은 조용히 신비로운 화음을 연주하는데, 다음 곡 ‘수족관’으로 연결된다.
7. 수족관: 악음기를 단 현악기와 ‘우나 코르다’로 조용히 연주하는 피아노의 영롱한 화음, 플루트의 반음계적 선율, 하모니카의 음색 등이 결합하여 신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8. 긴 귀를 가진 인물: 두 파트의 바이올린으로 연주한다. 찌르는 듯한 고음이 솟아오른 귀를 상징한다. 생상스가 좋아하지 않았던 한 평론가를 풍자했다고도 한다.
9. 숲 속의 뱀파이어: 피아노의 두터운 화음이 깊은 숲속의 신비를 연상시키고, 무대 뒤에서 연주하는 클라리넷이 보이지 않는 뱀파이어의 울음소리를 들려준다.
10. 커다란 새장: 현악기의 조용한 트레몰로 반주 위에 플루트가 큰 새장 안을 돌아다니는 작은 새를 묘사한다. 또 다른 새가 피아노의 고음으로 등장한다.
11. 피아니스트: 피아노 교습을 받는 듯 조성을 올려가며 음계 연주를 한다. 마치 재능이 없는 제자처럼 피아노가 고의적으로 실수를 한다. 마지막에 현악기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마치 선생이 참지 못하고 성을 내는 것 같다.
12. 화석: 실로폰으로 뿔조각이 부딪히는 소리를 연주한다. 18세기 스타일의 리듬과 선율로 생명력이 없음을 암시한다.
13. 백조: 낭만적인 첼로곡으로 <동물의 사육제> 중에서 유일하게 생상스 생전에 출판되었다. 여유 있게 하행하는 선율과 빠르게 상행하는 선율이 대조를 이루면서 백조의 우아한 자태를 그린다.
14. 피날레: 공연이 끝나고 모든 출연자가 무대로 나와 인사하듯이 앞에 나온 음악들이 짧게 재현되고, 마지막에 축제 분위기로 활기 있게 마무리한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1873-1943, Russia

교향적 무곡, Op. 45

Sergei Rachmaninov
Symphonic Dances for
Two Pianos, Op. 45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1873-1943)는 피아니스트로서 피아노 음악에 뛰어난 작품들을 남겼으며, 이외에도 교향곡과 교향시, 가곡 등을 남겼다. 반면에 무대 음악은 초기에 작곡한 세 개의 짧은 오페라 이외에는 아무런 작품을 남기지 않은 것은 특이하다. 아마도 1917년 12월에 러시아를 떠나 미국으로

망명하여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많은 준비와 협업이 필요한 무대 음악을 구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디아길레프가 이끄는 ‘러시아 발레단’ 출신으로 유명했던 미셸 포킨이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1934)에 안무를 만들어 공연하여 큰 성공을 거두자, 라흐마니노프는 오랜만에 무대 음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915년에 구상했다가 포기했던 ‘스키타인’을 다시 꺼내들었다가 곧 계획을 바꾸어 사람의 일생을 주제로 발레곡을 쓰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정오’, ‘저녁’, ‘자정’의 하루 만나절에 빚대어 세 악장으로 구상했다. 하지만 1940년 여름에 룩아일랜드에서 완성되었을 때, 이 곡은 <관현악 무곡>이라는 중립적인 제목을 갖고 있었으며, 각 악장에는 어떤 부제도 적혀있지 않았다. 초연은 1941년 1월 3일 유진 오먼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들에게 헌정되었다. 하지만 발레로 공연하겠다는 계획은 포킨이 1942년에 세상을 떠나면서 이루어지지 못했다. 라흐마니노프는 이 곡을 관현악뿐만 아니라 블라디미르 호로비츠와 연주하기 위해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버전도 함께 만들었는데, 오늘 이 버전이 연주된다.

1악장은 시작부터 거친 리듬 비트와 집요한 화음 반복이 관객의 이목을 사로잡으며, 강렬한 다이내믹으로 생명의 에너지를 전달한다. 이것은 ‘스키타인’의 구상 중에 나온 악상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와 대조되는 러시아 스타일의 아련한 선율이 등장한다. 마지막에 이르러 ‘디에스 이레’(진노의 날)가 나지막이 들리며, 곧 이어서 광활한 대지를 바라보는 듯한 탁 트인 음악이 연주된다. 이것은 애증이 서린 자신의 <교향곡 1번>(1896)을 인용한 것이다.

2악장은 왈츠이다. 빈의 왈츠는 밝고 경쾌하지만, 20세기 러시아의 왈츠는 구슬픈 감정과 죽음의 이미지가 서려있다. 프로코피에프의 <전쟁과 평화> 중 왈츠 장면이나 쇼스타코비치의 <현악사중주 2번> 중 왈츠 악장 등도 이러한 어두운 감성을 공유한다. 불안하고 두려움을 일으키는 전주 후 독주 바이올린이 유령이 등장하듯 음습한 선율을 연주한다. 중간 부분은 이와 대조적으로 과거의 행복했던 날들을 추억하는 듯 낭만적이다. 그러다 또다시 괴기스러운 팡파르와 함께 왈츠가 재현되며 잠시의 행복을 깨뜨린다. 마지막에 속도가 빨라지며 삶의 마지막 순간으로 몰아간다.

마지막 3악장은 느린 서주로 시작한 후, 빠른 본론으로 진입하면서 12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양한 형태로 변형된 ‘디에스 이레’가 지배한다. 라흐마니노프는 이 곡을 마지막으로 곧 닥칠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것일까? 아니면 이 곡이 죽음을 가져온 것일까?

그런데 라흐마니노프가 이 곡에서 진정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죽음이 아니다. 이러한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는 마지막에 러시아 정교회 성가인 ‘주여 축복 받으소서’를 등장시키며, 이 선율이 ‘디에스 이레’를 이기며 곡을 마무리한다. 라흐마니노프는 이 부분의 자필악보에 ‘할렐루야’라고 적었으며, 1940년 10월 29일 뉴욕에서는 이 곡의 악보에 이렇게 적었다. “하나님,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글 | 송주호(음악칼럼니스트)

Rachmaninov
Piano Concerto No.2
Symphonic Dances



Dong Hyek Lim

- ★ 임동혁 최초의 **협주곡** 앨범
- ★ 임동혁 최초의 **아르헤리치** 협연 앨범
- ★ 임동혁 최초의 **라흐마니노프** 앨범



PWCD-0086



피아노 협주곡 2번

임동혁 피아노,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알렉산더 베데르니코프 지휘

교향적 무곡

임동혁 & 마르타 아르헤리치 피아노



워너뮤직코리아 | 클래식 마케팅부 T. 02) 560-7960-1 | www.warnerclassics.com



워너 클래식



warnerclassicskorea

Le Carnaval des Animaux de Camille Saint-Saëns

Textes de Francis Blanche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텍스트 | 프랑시스 블랑쉬¹

1. Introduction

Au Jardin des Plantes,
Ainsi nommé d'ailleurs
À cause des animaux
Qu'on y a rassemblés
Au Jardin des Plantes
Une étrange ardeur
Semble régner.
On décore, on festonne,
On visse, on cloue, on plante,
Le castor construit des tréteaux,
La grue porte des fardeaux,
Le python accroche des tableaux,
Car ce soir au jardin des Plantes
C'est la grand fête éblouissante:
Le Carnaval des Animaux.
Tout est prêt.
La foule se masse,
L'orchestre, à pas de loup,
Discrètement se place:
L'éléphant prend sa trompe,
Le cerf son cor de chasse,
Et voici que soudain
Monte dans le silence,
Pour le plaisir de nos cinq sens,
La musique de Monsieur Saint-Saëns

1. 서주

식물원에,
거기 불려 모아진
동물들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름 붙여진
식물원에,
신비로운 열정이
깃들어있네.
꽃줄로 장식하고,
나사를 조이고, 못을 박고, 심고,
비버는 간이무대를 세우며
두루미는 짐을 나르고
비단뱀은 그림을 거네.
오늘 저녁 식물원에서
찬란한 축제,
동물의 사육제가 열릴 것이니.
준비는 끝났다네.
군중이 모여들고,
오케스트라는 살금살금
조심스레 자리하네.
코끼리가 나팔을,
사슴은 뿔피리를 드네.
이제 돌연히
침묵 속에서
우리 오감의 즐거움을 위해
무슈 생상의 음악이 떠오르네.²

1. 프랑시스 블랑쉬(1921-1974)는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겸 배우이자, 가수이며 풍자가이다. 수많은 영화와 연극, 드라마에 출연했고, 많은 노래를 발표했으며, 직접 작사 하거나 시나리오를 집필하기도 했다.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에 곁들여 서정적이고도 풍자적인 해설을 썼다.

2. 오감(cinq sens)과 생상(Saint-Saëns)의 발음이 같은 것을 활용한 언어유희다.

Marche Royale du Lion

Soudain:
 Vive le Roi!
 Et l'on voit,
 La crinière
 En arrière,
 Entrer le Lion,
 Très britannique,
 La mine altière,
 Vêtu de soieries
 Aux tons chatoyants:
 Soieries de Lyon,
 Évidemment.
 Il est fort élégant,
 Mais très timide aussi:
 À la moindre vétille,
 Il rugit comme une jeune fille.
 Peuple des animaux, écoute-le!
 Tais-toi! Laisse faire Saint-Saëns,
 La musique, et ton Roi!

2. Poules et Coqs

Gens de cour et gens de plume,
 Voici les poules et les coqs:
 Basse cour et courte plume,
 Ils sont bien de notre époque.
 Les uns crient Cocorico, très haut,
 Les autres gloussent, caquettent,
 Très bêtes,
 Car tous ont une idée secrète,
 Une idée de derrière la crête:
 Signer pour l'année entière
 Un contrat phénoménal:
 Les poules aux Folies Bergères,
 Le coq chez Pathé Journal.

사자 왕의 행진

돌연히 들려오는,
 국왕 만세!
 먼저는
 황금 갈기가 보이더니
 사자가 입장하네.

 영국인처럼
 도도한 얼굴로,
 비단옷을 입고,
 빛나는 풍채로.
 그 비단옷은 물론
 사자의 털.
 그는 우아하지만,
 또한 내성적이라,
 아주 작은 일에도
 아이처럼 낮을 붉힌다네.
 동물 백성이여, 들으라!
 침묵하라! 음악이 울리도록,
 그대들의 왕이 말하도록!

2. 암탉과 수탉

궁정의 귀족과 깃털펜을 든 작가,
 바로 암탉과 수탉이네.
 낮은 마당과 짧은 깃털,
 그것은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네.
 한 쪽은 꼬끼오 높게 울고,
 또 한 쪽은 꼬꼬댁,
 낮게 웃네.
 각자 벗 뒤에
 은밀한 생각을 숨기고.
 일 년짜리 재미난
 계약에 사인할 생각.
 암탉은 폴리 베르제르와,
 수탉은 파테 저널과.³

3. 폴리 베르제르(Folies Bergères)는 1869년 파리에 지어진 카바레 뮤지컬이다. 초기 인상주의의 대가 마네는 유명한 <폴리 베르제르의 바 (1882)>에서 권태로운 눈길로 거울을 응시하는 매춘부의 얼굴을 그린 바 있다. 파테 저널(Pathé Journal)은 1908년 창시자 사를 파테의 이름을 따 발간된 주간지로, 노래하는 수탉의 이미지를 상징으로 둔 채, 주로 전쟁과 관련한 전세계 이슈를 다루었다.

3. Hémiones (Animaux véloces)

Un hémione, c'est un cheval;
Des hémiones, ce sont des chevaux.
L'hémione est un bel animal,
Les hémiones sont de fiers animaux.
Il trotte comme un vrai cheval,
Ils galopent comme de vrais chevaux.
Il tombe sans se faire de mal,
Se relève sans dire de gros mots.
Et si l'hémione est un cheval,
Si les hémiones sont des chevaux,
Il a comme tout animal,
Ils ont comme tous les animaux,
Leur place dans notre carnaval,
Comme dans tous les carnavaux.

4. Les Tortues

Au Carnaval, une fois l'an,
Les tortues dansent le Cancan.
Et sous leur monture d'écaille
Elles transpirent, elles travaillent,
Elles se hâtent avec lenteur.
Mais quand vous verrez, spectateurs,
Danser ce Galop d'Offenbach
Au rythme de Sébastien Bach,
Vous comprendrez qu'il ne faut point
Jouer avec son embonpoint,
Et qu'il vaut mieux courir
Que de partir à point.

5. L'Éléphant

Les éléphants
Sont des enfants

3. 당나귀

당나귀 한 마리는 말 한 마리,
한 무리 당나귀는 한 무리 말.
당나귀 한 마리는 아름다운 동물,
한 무리 당나귀는 용감한 자들.
그는 말처럼 빠르게 달리고,
그들은 말들처럼 전속력으로 질주하네.
그는 아프지 않게 넘어지고,
조용히 몸을 일으키네.
당나귀들이 말들과 같다면,

그는 모든 동물처럼,
그들은 모든 동물들처럼,
우리의 사육제에 참석할 수 있다네,
다른 모든 사육제처럼.

4. 거북이

일년에 한 번 사육제에서
거북이들은 캉캉을 추네.
등껍질 아래에서
땀 흘리고, 움직여,
느리게 서두르다네.
그러나 바흐의 리듬에 맞춘
오펜바흐의 무곡에 따라 춤추는
그들을 보게 된다면,⁴
무거운 몸으로는 즐길 수 없으며,
적절한 시간을 들이기보다
서둘러 가는 편이 낫다는 것을
당신은 알게 될 것이네.⁵

5. 코끼리

코끼리들은
마치 아이처럼

4. 자크 오펜바흐가 작곡한 <지옥의 오르페우스 (1859)>는 주제나 형식에 있어 기존 오페라보다 가벼운 오페레타 작품으로, 글룩의 오페라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1762)>를 풍자했다. 그 효과는 2막 2장에 나오는 '지옥의 질주'에서 극대화되었는데, 이 곡은 클래식권위를 풍자하는, 당시 유행하던 대중 음악을 흉인 캉캉의 음악이 었다. 이후 생상은 이 캉캉 음악을 차용, 현악 위주로 편곡하고 느리게 변주하여 거북이를 표현했다.

5. 이는 '느리게 꾸준히 가는 것이 경주에서 이기게 한다', '서두를 필요 없이 현명하게, 모든 일에 필요한 적절한 시간을 들여야 한다'를 뜻하는 프랑스어 관용문을 뒤집은 것이다.

Qui font tout ce qu'on leur défend.
Car pour l'éléphant
Les défenses,
Depuis le fin fond de l'enfance,
ça se confond avec les dents.
Tout légers malgré leurs dix tonnes,
Comme des collégiens
de Cambridge ou d'Eaton,
Les éléphants
Sont des enfants,
Et qui se trompent énormément.

6. Les Kangourous

Athlète universel
Comme en vain on en cherche,
Voici le kangourou,
Redoutable boxeur,
Recordman du saut en longueur,
Et champion du saut à la perche.
Oui, quand de l'Australie
Tu quitteras la brousse,
Nos sportifs près de toi
Semblent des fantoches,
Kangourou! Tu les mettras tous.
Dans ta poche!

7. Aquarium

De la baleine à la sardine,
Et du poisson rouge à l'anchois,
Dans le fond de l'eau, chacun dîne
D'un plus petit que soi.
Oui, la coutume singulière
De cette lutte à mort,
dans les algues légères,
Fait frémir en surface
notre âme hospitalière.

금지된 모든 일을 행하네.
코끼리에게 있어
금지라는 말은,
어릴 적부터
어금니라는 말과 혼동되었기에.⁶
거구의 무게에도 가벼운,
캠브리지나 이튼의
중학생 같은,
코끼리들은
마치 아이처럼
자주 잘못을 하네.

6. 캥거루

더 찾을 필요도 없이
만능 선수는
바로 캥거루.
가공할 권투 선수,
넓이 뛰기 기록보유자,
장대 높이 뛰기 챔피언.
네가 가시킴불 숲을 지나
호주를 떠나 왔을 때,
네 옆에 선 우리 선수들은
모두 허수아비 같았지.
캥거루여! 너는 그들 모두를
주머니에 넣을 셈인가

7. 수족관

고래부터 정어리까지,
금붕어부터 멸치까지,
깊은 물 속에서, 모두들
자기보다 작은 것을 먹고 사네.
목숨 건 이 투쟁은
특이한 관습.
하늘한 물풀 사이로
수면 위의 우리,
여린 영혼을 떨게 하네.

6. 프랑스어로 défense 라는 단어는 금지를 의미하기도, 코끼리의 어금니, 상아를 의미하기도 한다.

Mais au fond, c'est la vie,
 quand on veut bien chercher;
 Et que celui qui n'a jamais péché
 Jette aux poissons la première pierre.

그러나 실상 들여다보면
 그것은 바로 인생.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자가
 제일 먼저 물고기들에게 돌을 던지라.⁷

8. Personnages à longues oreilles

Las d'être une bête de somme
 Dont on se moque à demi-mot,
 Au Carnaval des Animaux
 L'âne s'est mis un bonnet d'homme.

8. 긴 귀를 가진 인물

언제고 조롱당할 뿐인
 가축으로 사는 일에 지쳐,
 당나귀는 동물의 사육제에서
 사람의 모자를 썼네.

9. Le Coucou au fond des bois

Jouant à cache-cache
 Avec on ne sait qui,
 Le coucou, vieil apache,
 Vient de voler un nid.
 Usurpant une place,
 Détruisant un bonheur,
 C'est le coucou vorace
 Dont les maris ont peur.
 Et chacun soupire à part soi:
 « Que le son du coucou est triste,
 au fond des bois! »

9. 숲 속의 뺨꾸기

누군지 모를 이와
 숨바꼭질 하며
 늙은 악당 뺨꾸기는
 둥지 하나를 막 훔쳤네.
 한 자리를 찬탈하고
 한 행복을 망가뜨린
 탐욕스런 뺨꾸기를
 제 짝도 무서워하네.
 그러나 그는 또 탄식하기를,
 '저 숲 끝에서 들려오는
 뺨꾸기 소리는 그 얼마나 서글픈가!'

10. Volières

Étourneaux, martinets,
 Merles et rossignols,
 Serins et canaris,
 Alouettes et arondes, Volez,
 gentils oiseaux!
 Chantez! Personne au monde
 Ne vous condamnera
 Pour chantage ou pour vol.

10. 커다란 새장

찌르레기, 귀제비,
 티티새, 밤피꼬리,
 검은머리방울새, 카나리아,
 종달새, 제비,
 아름다운 새들이여, 날아가라!
 노래하라! 세상 누구도
 너희의 노래와 비상을
 책망할 수 없으니.⁸

7.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말을 패러디한 것이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어찌할까 묻는 질문에 그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답했다. 한편 '죄를 짓다(pécher)'라는 프랑스어 동사와 '낚시하다(pêcher)'라는 동사는 동음이의어다. 여기서는 전자가 사용됐지만, 자연스럽게 후자를 또한 연상시킨다.

8. 프랑스어로 소리가 유사한 '협박(chantage)과 절도(vol)'라는 말을 '노래(chant)와 비상(vol)'이라는 말에 대한 언어유희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문을 옮기면 '누구도 너희의 협박과 절도를 책망할 수 없으니'가 되나, 한글로는 언어유희가 전달되지 못해 '노래와 비상'으로 의역하였다.

11. Pianistes

Quel drôle d'animal!
 On dirait un artiste!
 Mais dans les récitals
 On l'appelle pianiste.
 Ce mammifère concertivore, digitigrade,
 Vit le plus souvent
 en haut d'une estrade.
 Il a des yeux de lynx
 et une queue de pie,
 Il se nourrit de gammes,
 Et ce qui est bien pis,
 Dans les vieux salons
 il se reproduit
 Mieux que les souris.
 Près de son clavier
 il vit en soliste;
 Cependant, sa chair
 est peu appréciée:
 Amateurs de gibier,
 Chasseurs, sachez chasser!
 Ne tirez pas sur le pianiste!

12. Fossiles

Sortis spécialement
 De leur muséum,
 Messieurs les fossiles:
 Les iguanodons,
 Les mégathériums,
 Les ptérodactyles, Ichtyosaures,
 Dinosaurés,
 Brontosaures, Nabuchodonosor,
 Et autres trésors
 Des temps révolus,
 Sont venus
 Simplement pour prendre l'air,
 L'ère quaternaire,
 Bien entendu.

11. 피아니스트

얼마나 우스운 동물인가!
 예술가라 할 테지!
 독주회에서는 그를
 피아니스트라 하네.
 포유류에다 지행류인 그는
 종종 높은
 단 위에 사네.
 스라소니의 눈매와
 까치의 꼬리를 하고,
 음계를 먹고 산다네.
 이보다 더한 것은,
 낡은 응접실에서,
 그가 쥐보다도 더
 잘 번식한다는 것.
 건반 가까이서
 그는 솔리스트로 살지만,
 그의 육신은
 존중받지 못하네.
 아마추어 사냥꾼이여,
 제대로 사냥하라!
 피아니스트를 겨냥하지 말라!

12. 화석

박물관에서
 특별히 외출한
 화석 님들,
 금룡,
 메가테류,
 익수룡, 어룡,
 공룡,
 뇌룡,
 그 밖에 지나간 시간의
 많은 보물들이
 바람을 쐬러 산책 나왔네,
 신생대 제4기의
 공기를 마시러.

Et sous les candélabres,
Ces corps qui se délabrent,
Éparpillant leurs vertèbres
Dans tous les sens
Les fossiles ont tourné
Sur la Danse Macabre
De Saint-Saëns.

13. Le Cygne

Comme un point d'interrogation
Tout blanc sur le fond de l'eau verte,
Le cygne c'est la porte ouverte
À toutes les suppositions.
Est-il pathétique, ce cygne?
Est-il un amant malheureux?
Est-il romantique mais digne,
Ou simplement crétin glorieux?
C'est un mystère qui persiste.
Et le cygne,
Aux accents de son air fataliste,
S'éloigne lentement de l'eau.
Pour lui, c'est un moment bien triste Lorsqu'on
va jouer ce morceau.
Mais c'est un bel instant
Pour le violoncelliste,
Car il va faire son solo!

14. Finale

Et maintenant ça y est,
La fête se déchaîne.
Les animaux oublient
Les grilles et les chaînes.
On danse, on fraternize:
Le loup avec l'agneau,
Le renard avec le corbeau,

큰 촛대 아래
파손된 저 몸들,
모든 방향으로
흩어진 척추뼈.
화석들이
생상의
죽음의 무도를 추네.⁹

13. 백조

마치 하나의 물음표처럼
푸른 물 위에 하얗게 떠오른
백조는 모든 예측을 향해
활짝 열린 문.
그는 비장한가?
불행한 연인인가?
낭만적이면서도 의연한가?
혹은 그저 명예로운 바보인가?
그것은 풀리지 않는 신비.
백조는
그 운명론자 같은 몸짓으로
천천히 물 위로 멀어져가네.
이 부분이 연주될 때
백조는 슬플 것이나,
솔로를 맡은
첼리스트는
기쁠 것이네.

14. 피날레

자, 이제
축제는 극에 달하네.
동물들은 창살과 사슬을
잊어버리네. 그들은
춤추고, 화해하네.
늑대와 양이,
여우와 까마귀가,

9. '죽음의 무도'는 중세 말에 발전한 일련의 회화를 일컫는 것으로, 어떤 신분으로 어떤 삶을 살든 모두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 주로 춤추는 해골 이미지를 통해 - 묘사한다. 생상은 1874년 '죽음의 무도'라는 제목의 교향시를 작곡했다.

Le tigre avec le chevreau,
 Et le pou avec l'araignée,
 Et le manche avec la cognée.
 Comme c'est joyeux,
 Comme c'est beau,
 Le Carnaval des Animaux!
 Et puis, quand la nuit
 se fera plus claire,
 Quand la musique
 aura décidé de se taire,
 Les bêtes feront
 la queue au vestiaire,
 Et la vie reprendra.
 À nouveau on se craindra:
 Le chien et le chat,
 Le lion et le rat,
 Et caetera.
 Ne riez pas!
 Les bêtes ne sont pas
 les plus bêtes, en somme.
 Et si vous en doutez un brin,
 Rendez-vous dimanche prochain
 Au Carnaval des hommes.

호랑이와 염소가,
 좀벌레와 거미가,
 손잡이와 도끼가.¹⁰
 얼마나 즐거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동물의 사육제는!
 그리고 밤이 더욱
 환해질 때에,
 음악이
 침묵하기로 할 때,
 동물들은 물품보관소에
 줄을 서고,
 일상이 되살아나네.
 다시 서로를 두려워하네.
 개와 고양이가,
 사자와 쥐가,
 술한 동물들이.
 그러나 웃지 말라!
 끝내 짐승들이
 가장 짐승 같은 것은 아니니.
 이것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거든
 다음 일요일에
 인간의 사육제로 오라.

번역 및 각주 | 목정원

10. '도끼를 따라 손잡이도 버린다'라는 프랑스어 표현이 있다. 한 나무꾼이 도끼의 쇠 부분을 물에 빠뜨린 후 낙담하여 손잡이까지 물로 던져버렸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어떤 일을 낙심하여 전부 포기함을 의미한다.



© SUSSCHIBANK / DG

아르헤리치 벅부 뮤직 페스티벌 총감독
아르헤리치 예술재단 대표
오이타현 명예시민

General Director, Music Festival Argerich's Meeting Point in Beppu
President, Argerich Arts Foundation
Honorary Citizen of Oita Prefecture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헤리치

Pianist
Martha ARGERICH

마르타 아르헤리치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났다. 다섯 살 때 피아노 레슨을 시작했고 빈센초 스카라무짜에게 배우며 일찍부터 천재성을 보여주었다. 8세 때 모차르트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하며 피아니스트로 데뷔했다. 1955년, 가족과 함께 유럽으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마갈로프, 굴다, 리파티, 스테판 아쉬케나지, 미켈란젤리와 함께 공부를 계속했다. 1957년 부조니와 제네바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후 활발히 연주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1965년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였으며, 이후 지금까지 아르헤리치는 인기와 실력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피아니스트 중 한 명이다.

아르헤리치의 레퍼토리는 바흐에서 메시앙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그녀는 유럽, 일본, 미국 등 전세계의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 음악제로부터 항상 러브콜을 받고 있다. 또한 아르헤리치는 그녀의 음악인생에서 실내악을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기돈 크레머와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와 정기적으로 듀오 연주를 하고 있으며, 넬슨 프레이레, 알렉상드르 라비노비치 등과 함께 여러 듀오 곡들을 연주했다.

아르헤리치는 1994년부터 일본 벅부 비콘 플라자의 필하모니아홀 명예음악감독을 맡고 있다. 1995년 아르헤리치는 10년 만에 '벅부 아르헤리치 뮤직 페스티벌'에서 전 세계 음악 팬들이 기다려온 첫 단독 리사이틀을 했는데, 이 콘서트에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1996년, 그녀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훈장을 수여받았고 이듬해 로마의 산타 체칠리아 국립 음악원의 멤버가 되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오이타현의 명예 시민이 되었다. 아르헤리치는 1996년부터 벅부 아르헤리치 뮤직 페스티벌의 총감독을 맡아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연주해 왔다. 아르헤리치의 이름을 딴 뮤직 페스티벌은 벅부와 오이타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일본을 시작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 루가노, 함부르크 등 전세계에서 아르헤리치 페스티벌이 열리게 되었다.

1999년 9월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마르타 아르헤리치 국제 피아노 콩쿠르가 시작되었다. 2001년 아르헤리치는 브레시아 베르가모에서 열리는 제 2회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 국제 피아노 페스티벌에서 수상하였다. 2001년 11월부터는 벅부 아르헤리치 뮤직 페스티벌의 자매 축제로서 그녀의 감독 아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헤리치 음악제>가 열리고 있으며, 매년 스위스 루가노 페스티벌에서 마르타 아르헤리치 프로젝트가 개최된다.

그녀의 음반은 도이치 그라모폰, EMI, RCA, 소니, 필립스, 텔렉과 같은 수많은 음반사들에 의해 발표되었고, 그래미상, 로 몽드 드 라 뮈지크(le monde de la musique)에서 수여하는 쇼크(CHOC)상, 그라모폰이 선정한 올해의 아티스트상 등을 수상하였다.



피아니스트

임동혁

Pianist

Dong Hyek LIM

임동혁은 7세의 나이에 피아노를 시작하여 10세 때 러시아로 이주, 그곳의 모스크바 국립 음악원에서 수학하였다. 임동혁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96년 국제 청소년 쇼팽 콩쿠르에서 형인 임동민은 1위에, 임동혁은 2위에 나란히 입상하면서 두 형제는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임동혁은 모스크바 국립 음악원에 입학하여 레프 나우모프를 사사하였고, 그는 “임동혁은 황금 손을 가졌다”라고 극찬하였다.

2000년, 부조니 콩쿠르와 하마마쓰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이듬해 프랑스 롱-티보 콩쿠르에서 1위 수상과 더불어 솔로 리사이틀 상, 오케스트라 상, 프랑스 작곡가 해석 상, 파리음악원 학생 상, 마담 가비파스키에 상 등 5개 상을 휩쓸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03년에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편파 판정에 불복, 수상을 거부하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클래식계에 핫 이슈를 몰고 왔지만, 2005년 제 15회 국제 쇼팽 콩쿠르에서 3위를 수상하며 그에 관한 일부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웠다. 또한 2007년 6월, 제13회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피아노 부문에서 1위 없는 공동 4위를 수상하며 세계 3대 콩쿠르를 석권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누구보다 임동혁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피아노의 여제’ 마르타 아르헤리치는 EMI클래식의 ‘젊은 피아니스트’ 시리즈에 그를 적극 추천하였다. EMI클래식은 아르헤리치의 의견을 받아들여 파격적인 조건으로 그의 데뷔 음반을 출시하였고, 임동혁은 이 음반으로 ‘황금 디아프종 상’을 수상하였다. 이후 ‘젊은 피아니스트’ 시리즈의 4명의 연주자 중 임동혁만이 유일하게 2집을 출시하였으며, 이 음반 역시 프랑스의 쇼크(CHOC) 상을 수상하며 평론가들의 찬사를 받았다. 2008년에는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으로 3집을 발표했고 이후 2015년 11월에는 워너 인터내셔널 클래식스 레이블로 쇼팽 프렐류드 전곡 음반이 발매되어 그라모폰과 BBC매거진에서 큰 찬사를 받았다.

유럽, 북미, 아시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임동혁은 뉴욕 링컨 센터, 런던 위그모어 홀, 파리 살 플레엘,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도쿄 산토리 홀 등 전세계 주요 공연장 무대에 올랐다. 또한 베르비에 페스티벌, 쇼팽 페스티벌, 루가노 페스티벌 등 다수의 페스티벌에서 연주했다. 샤를 뒤투아가 지휘한 NHK 오케스트라, 정명훈이 이끄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유리 테미르카노프의 샹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쿠르트 마주어가 지휘한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이르지 벨로홀라벡 지휘의 BBC 심포니, 마이클 톨슨 토마스 지휘의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등 세계 정상급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2018년에는 함부르크에서 마르타 아르헤리치와의 첫 듀오 무대를 가졌으며,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리고 아르헤리치와 녹음한 라흐마니노프 앨범이 2019년 5월 워너 인터내셔널 클래식스에서 발매되었다.

임동혁은 현재 독일 베를린에서 거주 중이다.

해설자 아니 뒤투아

Reciter
Annie DUTOIT

스위스 출신의 아니 뒤투아는 저명한 클래식 음악가 가정에서 태어났다. 유년시절 고전어와 고전 문명(그리스와 라틴 문명)을 공부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프린스턴 대학에서 비교문학 학사를, 뉴욕대학교에서 언론학 석사,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프랑스 로맨스어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뒤투아의 논문은 프랑스 반유대주의적 작품의 정치와 미학의 상호작용을 다루고 있다. 그녀는 뉴욕의 버나드 컬리지를 비롯 문학과 유럽 사상사를 강의했던 아리조나 주립 대학 등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교수직을 역임했다.

아니 뒤투아는 학자로서 일하면서 그녀의 학문적인 배경을 결합시킨 공연제작에 집중하게 된다. 그녀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경각심과 기억을 상기시키는 여러 공공 지원활동과 공연에 참여하였으며, 최근에는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을 맞아 유네스코에서 공연하였다. 이외에도 벨기에의 아우슈비츠 재단과 세계대전 참전용사기관과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폴란드의 쇼아(홀로코스트)의 흔적을 추적하는 교육 다큐멘터리를 연출 중이다. 또한 그녀는 빅토르 올먼의 오페라를 주제로 한 스페인-아르헨티나의 다큐멘터리 <아틀란티스의 황제>의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그녀는 다리우스 미요, 리스트, 생상, 스트라빈스키, 존 케이지, 프로코피예프의 작품들로 글과 연주, 음악이 결합된 공연을 선보였는데, 도쿄 산토리 홀, 파리의 필하모니 드 파리, 로마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브뤼셀의 보자르 아트센터를 비롯한 유럽, 일본,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등 세계적인 공연장에서 공연하였다. 2017년 9월에는 안토니오 파파노,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함께 녹음한 프랑시스 블랑쉬의 글을 결합한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 앨범이 워너 클래식스에서 발매되었다.

아니 뒤투아는 이 나레이션과 음악이 결합된 작품의 레퍼토리를 확장하는데 관심을 쏟고 있는데, 알렉스 난테, 다니엘 주드코프스키와 같은 현대 작곡가와 함께 작업하였다. 또한 세계 인권선언 70주년 기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 프리츠커, 존 파라, 조안 후앙, 아르샤 삼사미니아, 시넴 알탄, 밀리카 페라노직, 오하드 벤 아리의 작품들을 초연했다.

뿐만 아니라, 배우로서도 훈련받은 아니 뒤투아는 연극 공연과 연출에도 참여하였다. 그녀는 다이앤 사무엘의 <킨더트랜스포트 Kindertransport(유대인아동 수송정책)>에서 배우와 연출로 참여하였고, 연극으로 각색한 잉마르 베리만의 <가을 소나타>를 공연했으며, 현재는 야스미나 레자의 소설 <hammerklavier>를 각색, 공연을 준비 중이다. 아니 뒤투아는 21회 BAFICI(부에노스 아이레스 국제독립영화제)의 공식선정작인 <용서할 수 없는 L'impardonnable>에서 주연으로 출연하며, 불어와 영어 그리고 스페인어로 연기한다.

바이올리니스트

임가진

Violinist

Kajin LIM

임가진은 서울예고 재학 중 도미하여 샌프란시스코 콘서바토리를 거쳐 줄리어드 음대에서 학사, 맨해튼 음대에서 석사를 졸업했다. 국내외 솔리스트 및 실내악주자로 활발히 활동 중이며 콰르텟 크네히트 멤버로서 소니뮤직에서 2집까지 발매 중이다. 2005년까지 부산시향 수석을 역임하였으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향 제2바이올린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덕우

Violinist

Duckwoo KIM

서울시향의 수석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최근 차세대 연주자들이 모여 세간의 주목을 받은 클럽M의 멤버인 김덕우는 줄리어드 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도로시 프라함 포이어 콩쿠르와 버지니아주 콩쿠르에서 우승한 그는 거장 데이비드 진맨의 지휘 아래 아스펜 국제음악제 오케스트라와 데뷔무대를 가졌으며, 줄리어드 오케스트라, 서울시향 등과 협연하였다. 또한 콰르텟 크네히트의 멤버인 동시에 클래식 앙상블의 악장을 맡고 있으며 서울시향 제2바이올린 수석으로 활동 중이다.

비올리스트

강윤지

Violist

Yoonji KANG

강윤지는 서울대학교 재학 중 도미하여 커티스 음악원을 졸업했으며, 뉴잉글랜드 음악원 석사를 취득했다. 세계일보, 한국일보, 모스크바 국제 콩쿠르 및 텍사스 내셔널, 보스턴 베이스테이트 영 아티스트 콩쿠르 등에서 우승했다. 서울대 오케스트라, 커티스 심포니, 애틀랜틱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의 수석을 역임했다. 서울시향, 바로크 체임버, 뉴욕 심포니에타 등과 협연했으며, 서울시향 비올라 수석으로 활동 중이다.

첼리스트

심준호

Cellist

Joon-ho SHIM

심준호는 예원학교, 서울예고를 수석 입학함과 동시에 금호 아시아나문화재단의 영재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인 금호 영재 콘서트를 시작으로, 2006년 제 32회 중앙 음악 콩쿠르 우승 등 다수의 콩쿠르에서 두각을 나타내었으며, 2012년 안토니오 야니그로 국제 첼로 콩쿠르 2위 입상, 2010년 주네스 뮤지컬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이자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우승을 했다. 또한 실내악주자로서 유럽에서는 ECMA (European Chamber Music Academy) 멤버로서 활동하였으며, 현재 서울시향 첼로 수석으로 활동 중이다.

더블 베이스리스트

안동혁

Double Bassist

Dong-Hyuck AHN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후 1980년 서울시향에 입단 후 한국 실내악 운동에도 앞장서왔다. 1991년부터 매년 핀란드 쿠모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차이코프스키 트리오, 시벨리우스 콰르텟 등 정상급 연주자들과 함께 연주했다. 1993년 기타큐슈 국제 체임버 페스티벌에 초청됐고, 예음재단 주최 윤이상 페스티벌에서 국내 최초로 "Together"를 연주했으며, 1998년 윤이상 음악제에 남한대표로 평양 모란봉 홀에서 바이올리니스트 김현미와 연주했다. 2007년 산토리홀 한중일 우호 연주회에서 나루히토 왕세자, 마에스트로 정명훈과 연주했으며, 1998년에 창립한 한국콘트라바스 협회 초대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서울시향 더블베이스 수석으로 활동 중이다.

플루티스트

최나경

Flutist

Jasmine CHOI

최나경은 영국의 저명한 클래식 잡지 신피니뮤직에서 선정한 '음악 역사 이래 최고의 플루티스트 10명' 명단에 타계한 플루트의 전설 마르셀 모이즈, 줄리어스 베이커, 장-피에르 랑팔을 비롯하여 제임스 골웨이, 에마누엘 파위와 나란히 선정,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예원학교를 거쳐 서울예고 재학 중, 플루트의 거장 줄리어스 베이커로부터 극찬을 받으며 만 16세에 미국 커티스 음대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고, 이후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거장의 마지막 제자가 되었다. 졸업 후 줄리어드 음대에서 제프리 케이너를 사사했으며, 이후 커티스 음대, 줄리어드 음대를 비롯해 유수의 음대에서 초청 마스터 클래스를 가진 바 있다.

클라리네티스트

임상우

Clarinetist

Sang-Woo LIM

임상우는 서울예고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를 졸업한 뒤, 독일로 건너가 데트몰트 국립음대에서 Hans D. Klaus교수를 사사하며 석사과정을 최고점수로 졸업했다. 이후 스위스 바젤 국립음대에서 Francois Benda교수와 최고연주자과정에 수학하던 중 2007년 서울시향 클라리넷 부수석으로 발탁되었고, 2017년 클라리넷 수석으로 임명됐다. 2009년에는 한국인 클라리넷 연주자 중에서는 최초로 프랑스 뷔페 크랑퐁 클라리넷 아티스트, 2016년 실버스틴 아티스트, 2017년 프랑스 반도렌 아티스트에 선정됐다.

퍼커셔니스트

에드워드 최

Percussionist

Edward CHOI

서울시향 타악기 수석으로 활동 중인 에드워드 최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런던), 토론토 심포니, 시드니 심포니, 라디오 프랑스, 홍콩, 말레시아 필하모닉 등과 연주했으며 'Exit 9' 타악기 그룹의 멤버로 체서피크 실내악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그는 토론토 대학과 노스웨스턴 대학을 거쳐 럿거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숙명여대, 경희대, 한양대 등에 출강했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등에서 클리닉과 초청강의를 해온 그는 세계타악기인협회에서 심포닉 커미티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말레텍, 사비안 심벌즈 아티스트이다.

퍼커셔니스트

스캇 버다인

Percussionist

Scott VERDUIN

스캇 버다인은 미시간대학교 음악대학 학사를 취득하고, 템플대학교 음악대학원에서 수학했다. 사우스벤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으며, 포트웨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타악기 단원과 수석을 거쳐 현재 서울시향 타악기 부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다.

가장 위대한 피아니스트를 만날 수 있는 축복

지난 2월 25일과 26일 베를린.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믿기지 않았다. 다니엘 바렌보임이 이끄는 베를린 슈타츠키펠레와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3번 공연은 다시 떠올려 봐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쉽 없이 재잘거리는 생명력 넘치는 대화, 그 사이로 거대한 몸집을 가진 에너지가 꿈틀거렸다. 그 어떤 젊은 연주자보다도 힘이 넘쳤고, 곳곳에서 고개를 쳐드는 피아노의 유머에는 살짝 흘려버렸다. 타악기적인 주법이 등장하는 빠른 패시지에서도 미스터치 하나 없이 완벽하고 여유로운 78세의 피아노 천재. 데뷔한 순간부터 세상을 놀라게 한 아르헤리치의 음악은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비단 그날의 연주만 이토록 놀라웠을까. 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피아니스트는 지금도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다.

음악가의 현재성, 또 다른 감상의 시작이다

오는 5월 7일, 마르타 아르헤리치가 한국을 찾는다. 9년 만의 내한이다. 물론 혼자가 아닌, '2019 아르헤리치 벅부 페스티벌 인 서울' 공연으로 그녀가 아끼는 피아니스트 임동혁과 플루티스트 최나경, 서울시향의 수석단원들과 함께 무대에 오른다. 독주회도 아닌 그녀의 실내악 공연을 위해 티켓 쟁탈전을 치른다는 것은 다소 소모적이다 생각할 사람도 있겠다. '피아노의 여제'라고 불리지만 그건 젊었을 때의 일이다 생각할 수 있고, 아르헤리치의 검증된 연주는 음반으로 모두 만나봤으니 그것만으로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도 있다.

그런데 위대한 음악가의 현재성이란 또 다른 감상의 시작이다. 어쩌면 먼 후대 사람들이 음악사를 지켜볼 때에도 아르헤리치의 인생은 20세기보다 21세기 활동에 더 주목할지도 모른다. 80세를 앞둔 아르헤리치의 현재는 비슷한 시대를 살아온 연주자들이 은퇴한 지금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녀와 동시대에 살고 있고, 그녀의 현재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작은 축복이 아닐까.

최근까지 아르헤리치 연주를 들어본 사람들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80세를 바라보는 나이임에도 그녀의 연주 실력은 전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아르헤리치는 젊어서 피아니스트가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단숨에 이뤘다. 음악적인 탁월함은 물론 자신이 생각하고 느낀 바를 뜨겁게 주장하고, 뜨겁게 사랑했으며, 뜨겁게 분노했던 사람이다. 여전히 배낭 메고 기차 여행하는 것을 즐기고, 담배를 사랑하며, 단벌에 가까운 드레스를 입고 팔찌 대신 머리끈을 손톱에 끼고 무대에 오른다. 일상에서는 세 딸과 손주와 둘러 앉아 어떤 색깔 매니큐어가 손톱에 가장 어울릴지 한참 수다를 떨며 행복해하는 엄마이고 할머니지만, 새로운 음악과 좋은 연주를 발견했을 때 호기심 많은 소녀가 된다.

그 모든 것을 차지하더라도 현역 피아니스트들에게 가장 부러웠을 부분은 지금도 무대 위에서 최고의 연주자라는 점일 것이다. 한 시대를 호령했던 많은 음악가들이 무대에서 내려왔거나 예전만큼의 실력을 보여주질 못하는데 아르헤리치의 테크닉은 여전히 살아 있고, 새로운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도 샘솟는다. 베를린 무대를 함께 지켜본 임동혁 역시 “저런 피아니스트는 찾아볼 수가 없다. 나도 무대 위에서 오래, 잘 연주하고 싶다”고 했다.

내 생애 최고의 ‘교향적 무곡’ 연주는 리미첸코와 함께 한 것

공연 후 무대 뒤에서 아르헤리치를 만났다. 9년 만에 내한하는 한국 무대에 대한 소감도 듣고 싶고, 무엇보다도 임동혁에 대한 어떤 이야기라도 듣고 싶었다. 아르헤리치는 임동혁을 ‘리미’라고 부른다. 동혁이라는 이름 대신, ‘임’씨 성에 러시아식 애칭을 붙인 ‘리미첸코’를 줄여 부르는 애칭이다. 무표정했던 그녀가 리미를 보자마자 표정이 확 달라졌다. 어찌나 사랑스럽게 바라보던지, 그 미소가 얼마나 순수하고 소녀처럼 예뻐는지, 조금 전까지 무대를 장악하고 천여 명의 관객을 일으켜 세웠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리미의 연주를 항상 좋아했다. 15세 때 처음 연주를 듣게 됐는데, 만났을 때부터 ‘신동’이었고 보기 드문, 비범한 연주자였다. 난 그의 연주에 담긴 호흡과 프레이징을 아주 좋아한다. 어찌면 나르시시적인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호흡, 프레이징과 많이 닮아 있다. 그래서 함께 연주하는 게 아주 좋다. 가장 좋았던 연주는 지난해 함부르크에서 같이 한 라흐마니노프 ‘교향적 무곡’ 연주다! 이 곡은 다른 피아니스트들과 몇 번 했지만 함부르크에서 리미와 연주한 버전이 최고였다. 그렇게 완벽한 앙상블은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었다. 정말 훌륭했다.”

함부르크 라이트할레에서 열렸던 그 연주에 대해 독일의 클래식 음악 잡지 <클래식 베가이스터트>는 “아르헤리치와 임동혁의 호흡은 너무나 완벽했다. 누가 어느 파트를 연주하는지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였다. 특히 3악장에서 보여준 임동혁의 비르투오소적인 면모는 결코 아르헤리치에 뒤지지 않았다”고 극찬했다.

5월 초 워너 클래식스에서 발매하는 임동혁의 새 앨범에도 이들의 연주가 포함되었다. 아르헤리치는 함부르크 실황을 그대로 담는게 가장 좋겠다고 했지만, 앨범에는 두 사람의 스튜디오 녹음 버전이 수록되었다.

피아니스트 임동혁의 현재를 바라보는 시선

아르헤리치는 늘 ‘젊은 아티스트를 후원하는 것은 나의 음악 활동 중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해왔다. 자신이 발견해낸 젊고 재능 있는 연주자들이 앨범을 발매하고 빠른 시간 안에 음반사나 에이전트, 공연 기획자들과 맺어지기를 바라왔다. EMI(현 워너 클래식스)의 ‘아르헤리치 추천’(Martha Argerich Presents) 시리즈는 아르헤리치가 추천한 유망주들의 데뷔 음반 시리즈다. 임동혁의 첫 앨범도 아르헤리치와 EMI의 기획으로 발매된 것이다.

그런데 음반 발매 직전인 2001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롱티보 콩쿠르에서 임동혁이 우승하게 된다. 5개 부문 특별상과 함께 당시 16세였던 그는 역대 최연소 우승자가 되었다. 임동혁을 점찍은 아르헤리치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한 셈이다.

이후 임동혁은 최고의 피아노 콩쿠르로 손꼽히는 퀸 엘리자베스, 쇼팽,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모두 상위 입상하며 음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지금이야 웬만한 콩쿠르 우승 소식에도 둔감해질 만큼 한국 출신 젊은 음악인들이 최고의 낭보를 전해오고 있지만, 당시 임동혁의 기록은 깨지지 않는 ‘우리 천장’을 뚫어버린, 엄청난 일이었다. 어린 김선욱, 어린 조성진이 인터뷰에서 “동혁이 형처럼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듯이 유망주들에게 임동혁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재미있는 일이지만 애호가들의 눈은 음악가들의 행보에 따라 높기와 너비가 달라지게 된다. 신인의 등용문인 콩쿠르 소식과 유명 극장, 오케스트라와의 연주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우리의 눈이 본격적인 음악시장으로 향하게 된 것도 임동혁의 수훈이 크다. EMI를 통해 발매한 임동혁의 데뷔 앨범은 그해 프랑스의 최고 음반상인 디아파송 도르(Diapason D'or)를 수상하게 된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쇼팽의 전주곡 앨범은 까다롭기로 유명한 영국의 <그라모폰> <BBC 뮤직 매거진>으로부터 ‘쇼팽 전주곡의 전설적인 명장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앨범’이라는 극찬과 함께 그해 음반상 후보(Editor's Choice)에까지 올랐다.

오는 5월, 발매하게 될 그의 다섯 번째 음반은 라흐마니노프를 담았다. 알렉산더 베데르니코프가 지휘하는 BBC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라흐마니노프의 협주곡 2번을, 아르헤리치와 함께 연주한 라흐마니노프의 ‘교향적 무곡’을 수록한 앨범이다. 임동혁은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음악원에서 러시아의 전설인 네이가우스 악파의 계승자, 레프 나우모프 교수 밑에서 공부했다. 그간 발표한 쇼팽, 슈베르트, 바흐, 라벨 연주도 좋았지만 언제쯤이면 러시아 레퍼토리를 제대로 선보일까 기다렸는데, 드디어 그의 러시아 연주와 만나게 됐다.

앨범을 발표할 때마다 어떤 곡을 음반에 담을까 궁금했는데 드디어 러시아 음악과 만났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러시아 음악’의 특징은 뭘까요?

표현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 이해해주세요. 러시아 음악은 굉장히 뜨거워야 해요. 뜨거움의 정도가 그 어떤 작곡가의 음악보다 훨씬 더 뜨거워야죠. 물론 뜨겁기만 해서 된다는 말은 아니고, 유난히 즉흥적이고 열정적인 러시아만의 뜨거움을 체질적으로 잘 표현해내는 연주가 좋은 거죠. 뛰어난 연주자는 뭘 해도 다 잘할 거고, 좋을 겁니다. 하지만 연주의 재미를 얘기하자면 분명히 차이가 있죠.

연주자의 기질과 작품 자체가 갖고 있는 기질이 서로 잘 맞아야겠군요.

연주자 중엔 작곡가를 열심히 공부하듯이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음악적인 직감에 더 의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주자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어떤 접근 방식이 더 좋다고 말할 순 없어요. 그런데 작곡가가 요구하는 스타일도 달라요. 어떤 접근 방식을 어느 정도의 비율로 채택하느냐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 베토벤은 많은 연구가 필요한 인물입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하고, 느끼고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하고. 반면, 러시아 음악은 연주자의 재능이나 타고난 직관에 좀 더 의존해요. 학구적이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작품 혹은 작곡가의 타고난 성질, 성미, 기질이 러시아의 경우는 더 뜨겁고, 무엇보다도 ‘움직임’이 필요해요.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성격 말고, 음악을 선택하고 취하고 표현하는 성격은 또 달라요.

본인은 어느 쪽에 가깝죠?

러시아 쪽이요. 지금까지 배운 공부, 음악 환경, 접근 방식, 그것을 바탕으로 해온 연구는 모두 러시아에 있을 때 다진 것이고, 의존해왔고, 여태 잘 맞았거든요. 음악은 감성을 표현하는 분야지만 화학이나 물리처럼 하나의 학문이에요.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시간이 쌓이는 것인데, 어떤 사건을 겪었다고 단숨에 음악이 달라지진 않아요.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갑자기 음악이 비극적으로 바뀌진 않거든요. 하지만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느끼고, 그것들이 감정선에 묻어나오면서부터 달라져요. 제 기질이 러시아 쪽에 가깝다고 말하는 건, 어찌보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음악의 틀과 방향을 잡아가는 가장 예민한 시기에 공부했고 오래 머물렀던 곳이 러시아이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어릴 때부터 타고난 재능에 대한 칭찬과 기대가 많았습니다. 엠마누엘 엑스도 제자의 타고난 재능이 부럽다는 말을 여러 번 했고, 아르헤리치야말로 임동혁의 천재성을 발견하고 인정한 사람이죠. 어릴 때부터 활동해온 신동은 30대, 40대를 향해 가는 동안 어떤 고민을 합니까?

저도 인정하지만 굉장히 많은 걸 갖고 태어났어요. 기본적으로 테크닉이 매우 좋은 편이고요. 다른 피아니스트가 저와 비슷한 패턴으로 20~30대를 살았다면 벌써 추락했을 거예요. 예전에 저는 연습을 해야 할 때에만 했거든요. 음악적인 재능만 타고났지, 삶의 지혜를 배우는 데는 느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늘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성숙해진 것 같은데 그 점은 다행이죠.

타고난 감수성과 음악성, 테크닉으로 10대~20대 초반까지는 무대에 설 수 있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연주자는 음악 때문에 힘들어야죠. 고뇌하고 자신을 쥐어짜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공부해야지만 달라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끝까지 버티야 한다는 정신!

생각보다 저도 많이 공부해요. 무대는 항상 두렵고, 어렵기 때문이에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때가 찾아오기도 하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연주를 듣고 좋다 느낀 사람들은 제가 업살을 부린다고도 하지만 그만큼 나를 봐아대지 않으면 평범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르헤리치가 지난해 함부르크에서 함께 연주한 라흐마니노프 ‘교향적 무곡’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이 곡을 여러 번 연주해봤지만 함부르크 연주 때만큼 더 잘할 수는 없었다고.

저도 좋았어요. ‘교향적 무곡’은 라흐마니노프 말년에 쓴 최고 걸작인데, 원래 모음곡 2번도 생각했지만 ‘교향적 무곡’은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음악이에요. 앨범에도 담게 됐는데 그건 음반사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줬죠. 미국에서 엠마누엘 엑스 선생님과 먼저 이 곡을 연주하려고 했다가 제가 사정이 생겨 연주는 못 했는데, 워너 클래식스에서 아르헤리치와의 합주를 얘기하자 ‘아, 맞다. 라흐마니노프의 이 곡이 있었지’ 하면서 연주도 하고 녹음까지 하게 된 거죠.

언제부터였는지 인터뷰할 때마다 ‘노래하듯이 연주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사람이 노래를 하면 아무리 음악성 없는 사람도 음악적으로 부를 수밖에 없어요. ‘호흡’이 있어서. 피아노는 타악기다 보니 호흡을 간과하기 쉬운데, 보다 음악적인 표현을 하려면 노래하듯이 치는 게 중요해요.

롱티보 콩쿠르로 세계 무대에 데뷔한 후 정확히 20년이 흘렀다. 후배 연주자들의 활동이 그의 기록을 깨고 연일 뉴스를 만들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임동혁'이다. 솔로 활동뿐만 아니라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 임지영과 함께한 슈베르트, 베토벤, 모차르트 듀오 앨범, 연주는 앙상블에 대한 이해와 더 깊은 음악 세계를 보여준다. 특히 지난해 보여준 슈베르트 피아노 리사이틀은, '슈베르트, 그거 아무나 연주하는 거 아니야!'라며 본때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지금도 무대 나가기 전에 늘 긴장하는 사람, 항상 연주를 망칠 것처럼 바들바들 떨고 곧 어떻게 될 것처럼 우울해하다가,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실망시킨 적이 없는 연주자. 그가 올해는 더 특별한 무대, 더 특별한 앨범을 선보인다. 강박에 시달리고 마음으로 부딪치며 꺾이고 다듬어진 세월만큼 더 좋은 음악으로 만나게 되기를.

글 | 이지영 (음악 칼럼니스트, ClubBALCONY 편집장)

ClubBALCONY 92호 발췌

CREEDIA

제 21회 벳부 아르헤리치 뮤직 페스티벌 일정 <일본>

2019년 5월 7일(화) - 6월 2일(일)

- 5월 18일(토) 오이타 콘서트 (이이치코 문화회관, 이이치코 대극장)
- 5월 24일(금) 도쿄 콘서트 (도쿄 오페라 시티 콘서트홀)
- 5월 31일(금) 벳부 콘서트 (비콘 플라자, 필하모니아 홀)

Schedule of the 21st MUSIC FESTIVAL Argerich's Meeting Point in Beppu 2019 - Japan -
From May 7(Tue.) through June 2 (Sun.), 2019

- May 18 (Sat.): Oita Concert (iichiko Grand Theater, iichiko Culture Center)
- May 24 (Fri.): Tokyo Concert (Tokyo Opera City Concert Hall)
- May 31 (Fri.): Beppu Concert (Philharmonia Hall, B-Con Plaza)

For detail on the the Music Festival

www.argerich-mf.jp/en/program_e.shtml



Catch the Moments

디토 디지털 오딧세이 (DITTO Digital Odyssey)는 CREDIA Music & Artists의 퍼블리싱 컴퍼니입니다.
감동의 순간들을 소중한게 담아, 시공을 벗어난 먼 여행을 여러분과 함께 떠나고자 합니다.

ALBUM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스테판 피
재키브



STOP &
LISTEN
지용



리스토
마니아
지용



비흐
엑시비션
지용



비타 미아
로티니



The
Romantist
리처드 용재
오닐



LIVE
Ji-Yong
지용



Canto
Antigo
(오래된 노래)
신지아



인플러그드
VOL. 1
성민제 &
조윤성



신지아
in Live



Lovely Life
유키 구라모토
롯데백화점
개/페점 BGM



최나경
in Live
<파리의 연인>



Songbook
Vol. 1
박지민



Danny Boy
대니구

*2019년 신보 발매 예정

대한민국, 클래식에 빠지다 - 앙상블 디토 시리즈



앙상블 디토
<슈베르티
올로지>



앙상블 디토
<디어
아마데우스>



디토 in Live
<The Revolutionary/
Divertimento>



DITTO 10TH Anniversary <DITTO BOX>

BOOK



클래식 보헤미안
앙상블 디토
포토에세이
(문학동네)



나와 당신의 베토벤
리처드 용재 오닐이
들려주는 베토벤 현악사중주
(리처드 용재오닐, 노승림 공저/오픈하우스)

PODC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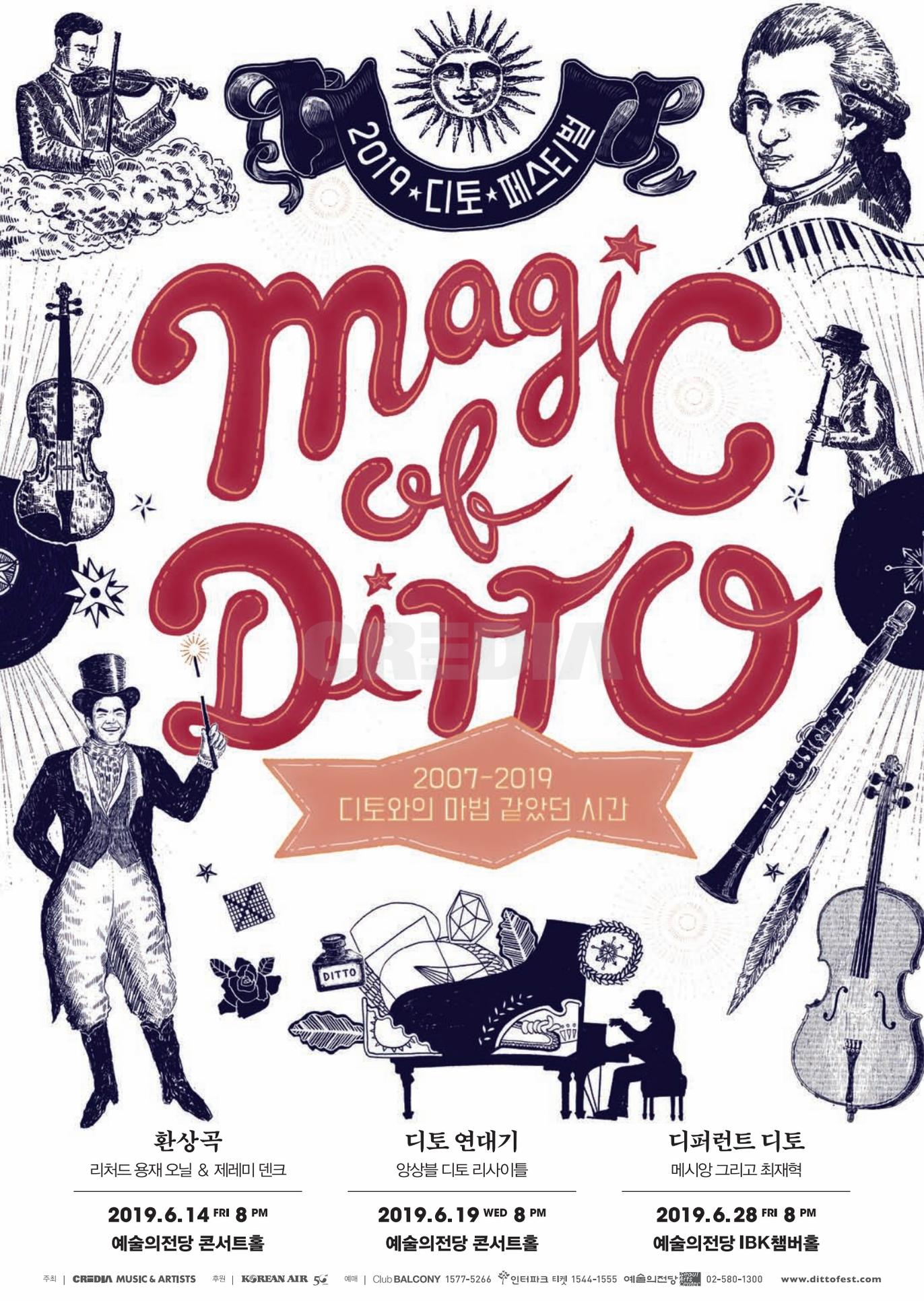
디토 클래식
클래식에 의한, 클래식을 위한,
클래식의 모든 것
매주 (토) 0피디의 땀큐포더뮤직 업데이트
매주 (화) 디토오디세이 (시즌 1 종료)

술술 클래식
매너리, 소피, 대장부와 함께하는
전 국민 클래식 풍덩 프로젝트
매주 (수/목) 업데이트

PROJECT

18세기의 클래식이 LP에서 CD로 이어지듯
21세기에도 누군가는 클래식을 사랑하고 가까이 합니다.
시로 만나는 클래식, 디토 디지털 오딧세이가 함께합니다.
디토 디지털 오딧세이는 현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문화/예술/관광 콘텐츠 서비스를 위한
대화형 챗봇(Chatbot), '미스터 디토(가)제' 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9 디토 페스티벌

magic of DITTO

2007-2019
디토와의 마법 같았던 시간



환상곡

리처드 용재 오닐 & 제레미 덴크



디토 연대기

양상블 디토 리사이틀



디퍼런트 디토

메시앙 그리고 최재혁

2019.6.14 FRI 8 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19.6.19 WED 8 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19.6.28 FRI 8 PM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STEINWAY & SONS

SPIRIO

세계 유명 피아니스트들의 연주를
우리 집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신개념 피아노

* STEINWAYSPIRIO.COM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RHAPSODY IN BLUE  ECSTATIC IN PINK

언제나 집안에서 즐길 수 있는 명품 콘서트 - 스타인웨이 스피리오.

iPAD와 연동하여 세계 유명 피아니스트의 곡을 무료로 얼마든지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주) 코스모스악기
스타인웨이 피아노 갤러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7 (주)코스모스악기 3층 TEL (02)522-8844
자세한 정보는 STEINWAYSPIRIO.COM 를 방문하세요.



STEINWAY & SONS

감사했던 50년을 넘어 보답하고 싶은 50년을 향해

지난 50년,
함께 해주신 고객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대한항공이 되겠습니다



한일문화교류 스페셜콘서트 Vol.6

벳부 아르헤리치 뮤직 페스티벌 in SEOUL 2019
마르타 아르헤리치 그리고 임동혁

이 프로그램은 Club BALCONY 후원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www.clubbalcony.com에서 공연을 예약한 후원회에 한함]

CREZIA MUSIC & ARTISTS

CREZIA
INTERNATIONAL

CREZIA
ENTERTAINMENT



www.crezia.co.kr



CREDIA Music & Artists 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 Music & Artists 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 Music & Artists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크레디아 페이지(www.credia.co.kr)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REDIA Music & Artists

www.credia.co.kr